

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임용

I. 개 요

1. 인사 개요

법무부는 지난 2014. 4. 16.(수)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였다.

2. 인사의 특징

(1) 검사 선발 과정에서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도입하고 5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하였다.

-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지원자의 정신 건강, 윤리 의식, 청렴성, 직무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선발 과정에 반영하였다.
- 이와 함께, '13. 9월~11월 사이에 ① 실무기록 평가 ② 직무역량 평가 ③ 발표·표현역량 평가 ④ 토론·설득역량 평가 ⑤ 조직역량 평가 등 5단계의 심층적인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관, 공직관, 적극성, 치밀성, 성실성 등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였다.

순번	평가	내용
①	실무기록 평가	▶ 수사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작성
②	직무역량 평가	▶ 면접 형식의 검찰업무 관련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 평가
③	발표·표현역량 평가	▶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
④	토론·설득역량 평가	▶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
⑤	조직역량 평가	▶ 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

-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특히, 인성 검사 및 역량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의심되는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심층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신규 검사를 임용하였다.
 - (2)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공인회계사, IT업체 근무경력자, 경찰 경력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신규 검사를 선발하였고, 신규 검사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도 13명(37%)을 선발하여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검사에 대하여 약 1년간 실무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한 후 현업 배치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년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간 일선청 실무 수습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현업에 투입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 및 실체 진실 발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 ※ 일선청에 배치되되, 1년간 실무교육 후 내년 상반기 검사 인사시 현업을 수행할 검찰청으로 정식 배치할 예정이다.

II.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현황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임용 검사 수
서울대학교	11명
연세대학교	6명
고려대학교	4명
성균관대학교	3명
한양대학교	3명
부산대학교	2명
중앙대학교	2명
강원대학교	1명
경북대학교	1명
이화여자대학교	1명
전남대학교	1명

※ 위의 표의 자료는 법률저널의 자료를 인용함